

월요광장



심 옥 숙
인문지행 대표

시간은 두 얼굴로 다가온다

세상이 아무리 불공평해도 흔히 시간만큼은 모두에게 공평한 것이라고 여긴다.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와 달력이 동일한 의미의 숫자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기 쉽다. 그런데 고대 그리스인들이 의하면 시간에는 두 종류가 있다. 기계적으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질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시간이 언제나 같은 속도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형태의 시간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시간을 관광하고 지배하는 신도 돌이라고 말한다. 여기에는 사람은 단순히 시간의 지배에 순응하기보다는 스스로 시간의 의미를 만들어 가는 존재라는 생각이 녹아 있다.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시간의 위력에 저항하며 주어질 시간 속에 자신의 의지와 열정을 새겨 넣는 것이 사람이라는 의미다.

우선 일상적 생활에서 누구나 경험으로 알고 있는 시간이 있다.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규칙적으로 일하고 먹고 잠자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심지어 미덕으로 권장된다. 이 시간이 ‘크로노스’가 관장하는 시간, 즉 연대기의 시간이다. 시계와 달력에서 보는 바로 그 시간이다. 이런 크로노스의 시간은 사람의 의지나 생각과 상관없이 오직 자연의 질서에 따라서 기계적이고 연속적으로 흐른다. 흐르는 방향은 언제나 과거에서 미래다. 이 흐름의 원칙을 거스르거나 흐름의 방향을 바꿔 놓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어떤 사람이 아무 행동도 하지 않거나 세상과 단절하고 혼자서 산다고 해도 시간은 정해진 속도로 제 갈 길을 간다.

그저 지속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에 맞춰서 습관적으로 사는 삶. 단지 시간을 채우는 삶에서의 주인은 크로노스다. 크로노스의 시간에서는 어제와 오늘이 구별 없이 흘러가는 무의미한 시간이 삶을 지배한다. 이렇게 크로노스 시간에 길들여진 수동적 삶에는 ‘현재’가 없다. 현재가 없는 시간은 무의미한 시간이다. 오직 ‘현재’를 통해서만 사람은 시간을 경험하고 이해하기 때문이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사람이 마주하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은 오직 현재뿐이라고 말한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과거는 이미 지난 시간이다. 삶은 오직 현재, 즉 지금 여기에서의 시간을 통해서만 앞으로 나아간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의 의미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삶은 시간의 공허한 집합일 뿐이다. 크로노스 시간은 오직 시간의

흐름만 있을 뿐, 그 의미와 가치가 결정되지 않은 텅 빈 시간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시간의 종류는 모두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새롭게 규정하는 시간이다. 시간을 쓰는 사람에 따라서 시간의 의미와 가치가 달라지는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시간이다. 이런 뜻의 시간은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한다. 이 시간은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크로노스적 시간과는 달리 같은 시간이라도 길거나 짧게 흘러간다. 사람의 의지와 목적에 따라서 속도와 길이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카이로스는 제우스의 막내아들로 ‘새긴다’는 말에서 유래했으며 ‘기회’를 의미한다. 카이로스 시간은 붙잡는 사람에게만 열리는 특별한 시간이다. 카이로스의 생김새가 곧 기회의 속성과 특징을 보여준다. 그는 앞머리는 무성하고 뒷머리는 머리털이 없는 대머리다. 앞머리로 얼굴을 가려서 사람들이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지만 먼저 발견한 사람은 쉽게 붙잡을 수 있게 한 것이다. 뒷머리에 머리털이 없는 이유는 지나간 기회는 다시 붙잡기 어렵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이것도 모자라서 두 발목에는 날개가 달렸는데, 기회가 얼마나 쉽게 달아나는가를 보여준다. 여기에는 손에는 저울과 칼을 들고서 기회를 저울로 달듯이 정확하고 칼같이 예리하게 판단해야 함을 비유적으로 말한다. 카이로스의 모습에서 보는 것처럼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시간이 아니다. 기회는 자신의 의지와

노력을 보여 줄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시간 속의 시간이다. 카이로스 시간을 결단하는 것은 시간의 가치를 알고 주인으로 사는 능동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과 자신을 바꾼 삶은 얼마나 사는가보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카이로스 시간의 결과다.

지금은 기술이 발달한 덕분에 많은 시간을 절약하며 사는 세상이다. 그런데 오히려 시간이 없다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모두가 정신없이 시간에 쫓기면서 더 많은 일에 허덕인다. 일하는 시간을 절약해서 남긴 그 많은 시간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 잃어버린 자신과 대면하고 자신을 실현하는 데에 쓰는가? 그 시간에 타성을 버리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것일까? ‘백수가 과로사한다’는 농담에서 시계의 초침에 따라서 움직이는 ‘영혼 없는’ 크로노스의 시간에 지배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보인다.

시간은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흘러간다. 다만 주어질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나눠진다. 천만다행으로 시간은 상속되지도 재생되지도 않는다. 시간의 흐름은 유예되지도 않는다. 누구나 매 순간, 단 한 번 허락된 시간을 산다. 이 시간을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 시간으로 만드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의 의지와 태도다. 남아 있는 오후의 시간부터 카이로스 시간으로 결단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새해맞이가 아닐까.

법조칼럼

돌이킬 수 없기에



김 두 히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사

‘돌이킬 수 없는(irreversible)’이라는 제목의 프랑스 영화가 있다. 영화는 파티장에서 있었던 연인 사이의 사소한 다툼이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 주는데, 비극적인 결말에서 행복했던 과거로의 역행을 통해 더 이상 모든 것을 ‘돌이킬 수 없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한다. 필자는 두 아이의 아버지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한밤중에 갑자기 아이가 열이 필필 끓는 등의 응급 상황을 맞게 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발을 동동 구르다가 병원 응급실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몇 차례 응급실을 방문한 적이 있고, 며칠 전에도 아이를 데리고 기록병

원 응급실에 다녀왔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응급실에서 의료진은 먼저 도착한 환자의 상태를 빠르게 확인한 뒤 환후의 경중에 따라 진료 우선 순위를 정하고, 그에 따라 신속하게 진단에 필요한 조사를 하고 처치를 하게 된다. 응급 상황에서의 신속한 진단과 처치는 치료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진단과 처치가 지체되면 환자가 사망하거나 환자에게 심한 후유증이 남게 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예가 가장 요구되는 덕목이라 할 것이다. 재판관 진행하다 보면 종종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신속하게 끝내달라는 요구를 받는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이 있듯이 신속한 권리구제라는 기준은 결코 무시돼선 안 된다. 그러나 재판은 그 본질상 마냥 신속하게 진행될 수만은 없다. 아니 마냥 신속하게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법원은 재판을 통해 양 당사자의 권리·의무가 무엇인지 선언하는데, 재판이 확정되면 재판 내용에 따른 권리·법률 관계

가 고정되고 이를 다시 돌이킬 수 없기에(재심 절차를 통해 결과를 바꾸는 게 가능하기는 하나,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가 제한돼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은 로부터 그 사유가 있다고 인정받는 것도 극히 예외적이다.),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가능한 한 많은 증거 자료를 검토해 숙고한 후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사법(司法)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 ‘judicial’의 접두사 ‘jud-’는 신중한 판단을 의미하는데, 이 역시 위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신속성에만 초점을 두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재판장이 당사자들이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제출된 주장 및 증거만을 기초로 하되, 불분명한 부분은 당사자에게 부여된 입증 책임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면 재판이 신속하게 끝날 수도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이 불충분한 주장과 증거만을 기초로 주장 책임 및 입증 책임에 따라 마무리된 재판은 일부 당사자들에게 예측치 못한 손해를 일으킬 수 있고, 그

와 같은 결과는 다시 돌이킬 수 없게 된다. 신속한 재판보다 신중한 재판이 강조돼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돌이킬 수 없는’ 당사자의 손해, 더 나아가 실제적 진실의 규명을 위함이다.

필자가 신속한 재판보다 신중한 재판이라는 가치를 보다 앞세운다고 해서 법원의 재판이 지체될 거라고 막연히 걱정할 필요는 없다. 법원의 구성원들은 신중하게 올바른 결론을 내리려고 하면서도 가능한 재판이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민사 사법제도는 작년에 이어 올해 2년 연속 1위로 평가됐으며, 특히 신속한 소송 절차 항목에서는 지속적으로 최우수 평가를 받고 있다. 필자가 글을 쓰는 현재를 기준으로 법원의 통계 자료를 살펴해보더라도 올해 처리된 사건수가 올해 접수된 사건 수를 상당히 웃돌 정도다. 필자 역시 앞으로도 정의가 지연되지 않는 세에서 올바른 결론을 위한 신중한 재판에 최선을 다하겠다.

기고

청년 일자리, 그들의 생존이며 국가의 미래다



한 국 환
전남도립대 외래교수

60~70년대 이후 호남 제일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은 K회사에서 있었던 이야기다. 평소 근면과 절약을 강조했던 사장님이 창밖을 내다보던 중 뚜렷이 눈에 띄는 젊은이를 발견했다. 타이어를 굴러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작업인데 그 청년은 다른 사람보다 더 부지런히 움직였다. 이런 모습이 날마다 사장님의 눈에 들어왔다.

그러던 어느 날 사장님은 그 청년을 집 무실로 불렀다. 열심히 근무하는 모습을 칭찬하며 청년의 집 사정을 물은 뒤, 양복점 하시는 아버지를 함께 찾아가서 부탁했다. “열심히 일하는 아들을 양아들로 삼고 싶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는 “안 됩니다. 아무리 생활이 어려워도 그렇게는 못 합니다.” 청년 아버지의 거둬되는 완강한 반대에 사장님은 아들 삼는 것은

단념했으나 자신의 집에서 숙식하며 근무하게 했다. 이렇게 하여 그 청년은 사장님 집에서 숙식하며 일하게 되었다. 청년의 방은 따로 있었고 식사는 혼자서 했다. 반찬이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 시절 먹기 어려운 고기 반찬이 있어서 좋았다. 결국 그는 ‘성실함’을 인정받아 특별 대우로 근무했으며, 월급은 정해진 액수를 받았고 격려금은 매달 보너스로 사장님께 직접 받았다.

사실 그 청년은 소위 가방꾼이 짝자 자신이 내세울 것은 육체적인 힘뿐이어서 자신의 능력으로 최선을 다했던 것이다. 이처럼 ‘성실’은 정성을 다한다, 진실하다, 거짓이 없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내포된 것으로, 결국 자신의 이익으로 되 돌아올 뿐 아니라 조직과 사회에 긍정적인 성과로 돌아오는 최고의 덕목이다.

요즘 젊은 청년들은 육체적 체력뿐 아니라 어떤 일도 성실히 해낼 수 있는 준비가 돼있다. 갖가지 스펙과 더불어 창의적 역량으로 무장되어 있다. 그런데 일자리가 없다. 취업은 고사하고 아르바이트를 구하지만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돼 감원시키고 무인 점포도 등장하여 일자리가 줄어들어 더욱 안타깝다. 더군다나 더 심각한 문제는 값싼 외국(중국, 동남아 등) 인력에 밀려 우리나라 근

로자들의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으니 설사 가상이다.

몇 년째 젊은이의 일자리는 재난의 수준이다. 갈고 닦은 자신의 능력과 열정을 발휘할 일터와 기회가 주어지지 못함이 안타까울 뿐이다. ‘자신의 능력을 감추지 마라. 재능은 쓰라고 주어진 것이다’는 명언도 있지만 갈고 닦은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곳이 없으니 더더욱 비극이다. 또한 일자리를 제공했다는 구실로 보수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저임금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소위 ‘열정페이’(熱情 Pay)의 일자리도 거의 없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니트족’이 147만 9천 명으로 추산되고 있어 그들은 너무 힘들고 지쳐있으며 희망이 없으니 일자리야말로 청년들 생존의 문제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17년 글로벌 인적 자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인적 자원 활용 능력은 세계 130개국 중 27위로 상위권이나 노동 참여는 하위권이다. 또한 15~24세의 노동 참여율은 28.1점(100점 기준)에 불과해 130개국 중 120위로 꼴찌 수준으로 인적 자원 배치는 열악한 수준이다.

지난 10월 통계에 따르면 올 8월 취업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20대 실업자 비중

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특히 20대 실업자는 39만 명이고, 이중 취업 무경험 실업자는 7만 2천명(20대 전체 실업자의 18.5%)으로 지난해(17.6%)보다 높아 역대 최고점을 찍었다.

이는 IMF 외환위기의 1999년 8월 10.0%보다 8.5%포인트 높고, 글로벌 금융 위기인 2008년(9.7%)과 2009년(7.3%)에도 못 미친다. 결국 최근 상황이 외환 위기나 글로벌 금융 위기 때보다 청년층의 취업 문턱이 더 높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볼 때 정부에서는 청년 일자리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북의 핵과 미사일 대책, 한미 FTA, 일본과의 위안부와 독도, 중국과의 미래지향적 정책, 무역의 다변화 등 외교도 중요하지만 국내 긴급 과제는 청년 일자리 문제다.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희망이 없으면 국가의 미래도 없다. 그러므로 위기의 나라를 살리기 위해 이제 정당, 계층, 지역, 세대 간의 이해 독살을 떠나 정부, 국회, 그리고 기업의 총체적 접근을 통한 실질한 해법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은 현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가 설치된 만큼 가시적 성과를 내어 그 이롭음을 해야 할 것이다.

社說

노선 확정 호남선 KTX 조기 완공에 힘 모아

정부가 광주 송정~목포 간 호남고속철도 2단계 노선을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는 안으로 확정했다. 노선 갈등으로 사업이 표류한 지 11년 만이다. 이에 따라 침체에 빠졌던 무안공항도 활성화의 새 전기를 맞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호남고속철도 2단계 ‘광주 송정~목포 노선’을 무안공항 경유 노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내년 중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2020년 착공해 2025년 개통한다는 단계별 이행안도 제시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용역 결과와 지자체 의견 등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결과 무안공항 경유 노선이 적합하다는 입장을 최근에 정했다”고 밝혔다. 노선을 둘러싼 이견으로 논란을 불렀던 두 부처가 조율 끝에 무안공항 경유를 확정된 것이다.

호남고속철도는 전체 구간 중 오송~광주 송정 구간만 지난 2015년 개통돼 ‘반쪽 고속철도’에 머무르고 있

다. 단계별 추진 계획 때문이다. 2004년 개통된 경부선에 비해 11년이 늦어지면서 대표적인 영호남 차별 사례로 꼽혔다.

2단계 사업은 국토부가 2006년 8월 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공식화했다. 그해 전남도가 무안공항을 경유해야 한다고 노선 변경을 건의하자 국토부도 이를 수용했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무관심 속에 기재부가 예산 과다를 이유로 광주~목포 간 기존 노선을 고속화하고 무안공항에는 지선을 신설하는 안을 고집해 추진이 계속 미뤄졌다.

우여곡절 끝에 2단계 노선이 확정됐지만 애초 유희였던 개통 시점은 8년이 나 늦춰지게 됐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하고 집중적인 예산 투입을 통해 완공 시기를 2~3년 이상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와 국회는 내년 예산부터 대폭 증액해 더 이상 ‘눈물의 호남선’이 되지 않도록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바다낚시 배 안전 점검·교육 강화 절실하다

바다낚시가 큰 인기를 끌면서 최근 2~3년 새 해양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어제 오전엔 인천 영흥도 인근 해안에서 22명이 탄 낚시배가 급유선과 충돌·전복되면서 1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해경 조사에 따르면 사고 선박은 선원·승객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등 현재까지 법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바다낚시가 국민 레저로 각광받고 있는 사실은 종편 채널들이 앞다퉈 낚시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낚시인구가 늘다 보니 사고 또한 자주 일어난다. 해양 사고는 단시간 내에 구조하지 않으면 인명 피해가 불가피한 만큼 이번 사고를 계기로 바다낚시 배 불법 행위 단속 및 안전 점검을 상시화해야 할 것이다.

해양수산부의 ‘최근 3년간 낚시 어선 단속 현황’에 따르면 불법 행위 적발 건수는 지난해 853건으로 2014년 112건 대비 7.6배나 뛰었다. 지난해 적발된

불법행위는 금지 구역 낚시가 57건으로 가장 많았고 출·입항 미신고 49건, 정원 초과 40건, 미신고 영업 37건, 음주운항 4건 등이었다.

이에 따라 낚시 어선 사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737건의 낚시 어선 사고가 발생했는데 2014년 이전까지 연간 사고 발생건수가 100건 내외에서 2015년부터 206건으로 배 이상 크게 늘어났다. 해역별로 보면 전남 해역이 총발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사고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낚시 어선 사고의 원인은 정원 이상 승선이나 낚시 금지 구역 또는 파도가 높은 공해상까지 원거리 운항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낚시를 하는 사람들의 주의가 요망되지만 안전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해양 당국의 노력도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낚시 배 입자에 대한 연간 4시간의 안전 교육도 대폭 늘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신화, 전설, 설화, 동화에는 특유한 우주관이나 가치관이 담겨있다. 이들 이야기에 담긴 다양한 상황과 진행 과정 그리고 결말을 부모로부터 전해 들은 아이들은 무의식적으로 그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들 이야기에 담긴 생각의 방식과 생활 패턴,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자연스럽게 전체 구성원들의 삶에 녹아들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농업 혁명과 산업 혁명을 거치면서 정교하게 다듬어지고 전해져 온 기존 이야기들은 지극히 바람 앞의 촛불처럼 흔들리고 있다. 최근의 과학 혁명과 정보 혁명으로 인해 세상이 빛의 속도로 변해 가면서, 그동안 집단 무의식의 한편에서 사람들의 행동을 ‘조종’해 온 옛 이야기들이 급속도로 힘을 잃어 가고 있는 것이다. 변해 버린 세상은 사람들이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새로운 이야기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

최근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성폭력 고발이 잇따르고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캠페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동화 ‘잠자는 숲속의 공주’가 성폭력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영국

일간지 더타임스에 따르면, 6살짜리 아들을 둔 영국 여성 세라는 초등학교 교재에 실린 이 동화가 ‘부적절한 성적 매시지’를 담고 있다면서 교육 과정에서 이 동화를 빼 주도록 학교에 요청했다. 세라는 이 동화에서 왕자가 공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키스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녀는 이 동화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조장했으며, 동화의 부적절한 내용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도 ‘선녀와 나무꾼’을 비롯한 일부 설화과 이야기들이 잘못된 성문화

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영국 여성 세라의 시각에서 본다면 ‘여성의 목욕 장면을 몰래 훑쳐보고, 도망치지 못하게 웃을 강추고, 집에 데려다 놓고 온갖 힘든 일을 시키며, 아이를 돌보아나 날개 한 것’은 용서 못 할 남치와 성폭력 아닌가.

옛 이야기들에 ‘성폭력 조장’이라는 허물이 씌워지는 것은 안타깝다. 하지만 이야기는 이야기대로 놓아두고, 변화한 세상에 맞는 새로운 이야기를 찾아 나서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홍형기 정치부장redplane@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지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우투로 발행 10,000원 1부 500원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